

그냥 말하만 되지 왜 굳이 오른팔 잡고 얘기한 거에
요 목소리도 큰데
왜 내 자리 올때마다 자꾸 팔만져요 다른사람들한테
그러는거 난 못봤는데
못해서 나랑 같이 카페에 있던 남자들한테 그렇게 터
치 안하던데?
어깨 두드리는건 좀 봤고 특히 여자애들도 거의 안건
드리던데

1. 평소에 내 어깨 등 두드려주고 팔만진거 인정?
2. 그날 오른팔밑 계속 잡고 있던거 인정?
3. 내 팔 잡고 있을때 손가락에 살 닿고 있었던 것도 인정?
4. 어깨 두드리는거 허락해줘서 이런 일 생겨서 앞으로 어떤 이유든 어떤 부위라도 내몸 만지지 마라

금요일 6시쯤 강의실
맨 뒷자리라 안보여서 그런거 아니냐

평소에 내 어깨 등 두드리는거 그냥 말로만 해도 되

는데 왜 스킨십 하느냐

내 코드 봐주러 옆에 앉을때마다 내 팔 만지는데 왜 그랬냐

원래 누가 나 만지는거 싫어하는데 넘어갔다/이정도는 넘어가준거다

주말 내내 속이 답답했다

그냥 이메일에 기억 안나지만 니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소리만 했어도 적당히 넘어갈려고 했다

나는 패닉이라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서 그보다 짧을 순 있지만 내가 의심할만큼 길게 누르고 잇던건 사실이다. 사기꾼이 나한테 아부떠는 내용을 쓸데없이 반복해서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

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굳이 오른팔밑 잡고 얘기했냐

당신이 그걸 의도하지 않고 진짜 몰랐더라도 난 이정도로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화난다. 고의만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찔러도 되나? 결혼도 하고 집에 딸도 있다면사

본인만 아무렇지 않은척 하면 다냐?

격려하는것도 왜 스킨십이야 강 말로하면 되잖아 목
소리 엄청 크더만

이메일에 어떤 부위든 남의 몸을 만지면 안된다고 썼
는데 메일 답장에 난 친해지려고 그런거라고 써놔서
실망

딸 세명이라면서 2021년에 이정도로 조심성없이 행
동하는건 솔직히 충격이다

코딩에 대해 잘 알면서 그나이 먹도록 어깨 두드려주
는 거나 머리쓰다듬은걸로 성추행 고소당하는 거 몰
랐다는게 말이 되냐

그냥 넘어갈수는 없지 않느냐 가슴 만진건데

팔 이 부위 잡았는데 여기서 손가락에 살이 만져졌다
면 어느부위라거 생각했느냐 등은 아니지 않냐 상식
적으로 이해가 안간다

빠따로 때린단 소리도 하지마라 하나도 안웃기다

욕좀 해도 될까요